

중동사태에 '新 3高' 짙어진 먹구름

중동 불안에 '高유가·환율·물가' 재연 가능성

고물가 회복 못한 한국 경제 충격 가중 우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한국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면 고유가, 고회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속된 고물가 기조를 역누르기 위해 긴급대책을 쏟아냈던 정부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말에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등이다. 이와 함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서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한 정부의 긴급 조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0.64달러 오른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해 12월 8일 68.61달러를 기록한 뒤 뚜렷한 상승세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5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0.71달러 오른 배럴당 90.45달러, 두바이유는 90.22달러 수준이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도 올 들어 하락세를 멈추고 오상향하고 있다.

환율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15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384.50원을 기록하는 등 1380원대로 올라섰다. 1년 5개월 만에 1380원대를 찍은 환율은 1400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유가와 고회율은 가파르거나 불안한 물가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놴다.

유류세 인하 연장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격인상 현장점점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와 고회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위기는 2022년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같은 3고 위기가 재연되는 '신(新) 3고' 복합 위기가 닥치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리 경제에는 충격이 가중

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고물가 상황이 채 안정되기 전 중동 리스크가 터진 데다 4·10 총선 직후인 만큼 재정 정책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이나 유가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물가에 영향을 받는데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의 경우(국내) 영향을 미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시행 한 달 '호응 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신규로도 입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업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301명의 신청자가 계약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 15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한모(70)씨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덕분에 자식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만족감이 크다"며 "앞으로 잔여 농지로 텃밭을 가꾸며 넉넉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는 매도 대금 외에도 매월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시행 한 달 만이지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경우 예산 소진으로 조기에 가입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지원 받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에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

"들쭉이는 물가"...3월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

수입물가 0.4% ↑...국제유가·환율 오름세에 기인

국제유가 오름세에 3월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 후퇴와 중동 정세 불안정이 맞물리면서 고회율과 고유가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2015=100)로 전월(137.24) 대비 0.4%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7월(0.2%)부터 8월(4.2%), 9월(3.0%), 10월(0.9%)에 걸쳐 4개월 연속 반등한 후 11월(-4.4%)과 12월(-1.7%) 두달 연속

하락한 후 1월(3.1%) 반등한 바 있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중간재는 석탄및석유제품(0.9%), 제1차금속제품(0.5%) 상승에 전월 대비 0.4% 올랐다. 자본재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소비재는 0.2% 하락했다.

3월 수입물가 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두바이유는 90.88달러였지만, 3월에는 84.18달러로 전월 대비 4.1% 상승했다.

환율 영향을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2.0%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120.89로 전월 대비 0.4% 올랐다. 3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농림수산물품은 전월에 비해 3.1% 하락했고, 공산품은 화학제품(1.1%),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9%)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0% 올랐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출 물가는 화학제품과 반도체 오름세 지속에 상승했고, 수입은 유가 오름세에 영향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광산품을 중심으로 상승세지만,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만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

광양만경제청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6일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

/광양=주은익 기자

2월 시중에 풀린 돈 5조7천억 원 ↑...9개월째 '증가'

단기성 정기에적금·주식형 펀드 자금유입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한 가운데 예금금리 고점 인식에 따라 단기 중심의 정기에적금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M2광의통화, 평잔)는 3929조 9000억원으로 전월(3924조 2000억원)보다 5조 7000억원(0.1%) 증가했다.

M2는 지난해 5월까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후 6월(0.3%)부터 반등에 나서 9개월 연속 올랐다. 다만 2

월 상승률(0.1%)은 지난해 12월(0.6%)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3.4% 늘어 전월 증가폭(3.0%)보다 커졌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21년 12월(13.2%) 이후 17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 2년 미만 정기에·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에적금(18조 3000억원), 수익증권(6조 8000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금전신탁(9조 2000억원), MMF(-5조 5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경기 주체별로는 정기에적금을 중심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2조 7000억원 늘었고,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기타금융기관(4조 8000억원)도 증가했다. 기타부문은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1조 8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은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5조 9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정기에적금은 예금금리 고점인식과 은행의 자금유지 노력 등으로 증가했고,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장중 1400원 돌파...1년5개월 최고

지난 2022년 11월 7일 1401.2원 이후 최고치

탄탄한 미국 경제와 중동 정세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가 장중 1400원을 돌파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께 원·달러는 1400에 거래 중이다. 증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01.2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직전일 대비 5.9원 오른 1389.9원에 장에 나쳤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견조한 경기로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다.

전날 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96억달러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증권가의 시장전망치 0.3%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동 불안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에 직접 공격을 가하면서 불거졌던 지정학적 위험은 이스라엘이 전면전 유발보다 "고통스러운 보복"으로 선회했지만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영향으로 미 국제금리는 치솟

았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4.616%로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제 수익률은 4.925%까지 올랐다.

증시는 하락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만7735.11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2%, 나스닥은 1.79% 떨어졌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밀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의 7월 인하 기대는 한 달전 70%대 후반에서 이날 48%까지 내려갔다.

이는 그대로 강달러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지수는 106.205포인트로 0.167포인트 상승해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국내 증시 부진도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날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0% 내린 26305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은 0.97% 떨어

/뉴스

광주경자청 '월드 IT쇼 2024' 참가

17~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광주경자유역 홍보관 운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4'에 참가한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월드 IT쇼 2024'는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LG CNS,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등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4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기 기자

중기부, 동행축제 300곳 최종 선정

민간 전문가 평가·건강주스·종이드론·에코칩 등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과 추천선발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다. 총 1139개사가 신청했으며, 각각 공개모집 956개사, 추천 183개사가 접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동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백년가게 제품 '따귀탕', 건강주스, 펍키 등 식품·간식류와 인구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칩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 라이브커머스, 축제연계 오프라인 판촉전 등 판로 지원과 온·오프 매체 활용 홍보 등 혜택이 제공 예정이다. /권영안 기자

한전KDN, 중소기업 동반성장 3년 연속 '최우수'

한전KDN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인정 받았다.

한전KDN은 전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평가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한전KDN은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ICT 리더, 한전KDN'이라는 동반성장 비전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간 '전략ICT 미래분야 지원강화', '동반성장·지역상생 확산', '포괄적·성장지원', '에너지 ICT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4대 추진 전략목표를 수립·실행해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 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실천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 한전KDN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 획득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